2004 지방재정 세미나

환 영 사

전 태 홍
(목 포 시 장)

유달산의 신록과 우리목포의 아름다운 바다풍경이 미항목포의 멋과 낭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2004 한국지방재정 세미나」가 우리목포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귀하신 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조기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과 이재은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모든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목포는 개항107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바다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이자 예향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달산과 삼학도, 갓바위 문화의 거리,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등에는 해마다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서깊고 아름다운 문화관광의 도시 미항목포에서 재정운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함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이 지역의 재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특별법의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중앙집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

모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에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지방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를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항목포를 찾아주신 귀하신 분들께 거듭 환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목포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8일

목포시장 전 태 홍